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Bi-annual Magazine

**2018
SUMMER
VOL.047**

공존극장

뭄바이에서 서울,
5000km의 거리를 넘어
춘천에서 만나다

출입국에서 알려드려요

자동출입국심사
해외에서도
이용하세요

세계인의 날

함께라서 더 좋은
어울림의 무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제 11주년 '세계인의 날'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함께 연주해 볼래?”

사진 박윤준



길 위의 연주자
프랭크 씨.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는 이의 존재가
수많은 청중보다 반갑다.
함께 연주하는
클라리넷 선율은
유달리 아름다울
것만 같다.

공존

2018
SUMMER
VOL.047

〈공존〉 2018 여름호 통권 제47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18년 8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2110-4019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세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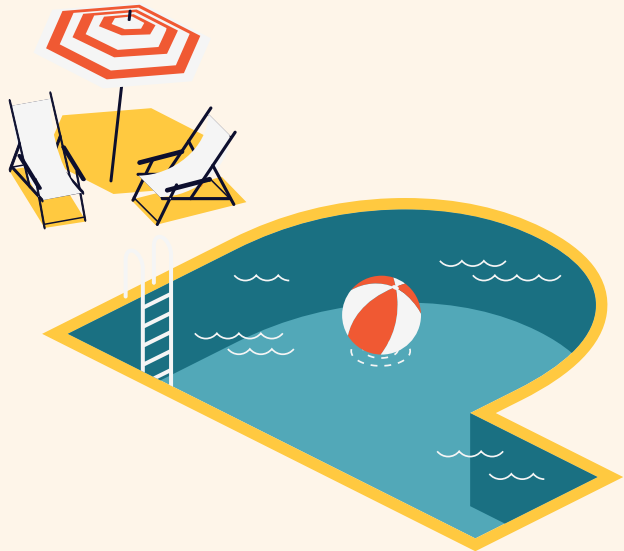
〈공존〉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여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CONTENTS



- 02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을**
세계인의 날 사진 공모전 수상작
- 04 **Editor's Message**
- 06 **마음으로 쓴 손편지**
나의 자랑 은겸이, 병철이, 그리고 금동이에게
- 08 **공존극장**
뭄바이에서 서울,
5000km의 거리를 넘어 춘천에서 만나다
- 12 **생활의 발견**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아이의 탄생과 첫 생일 축하하기
- 14 **꿈꾸는 대로**
눈빛으로 통하는 든든한 '쓰리백(3Back)'
- 16 **OLD&NEW**
여름 필수품, 등등거리 VS 쿨링셔츠
- 18 **이대로가 좋아라**
나눔에 국적이 필요한가요
- 20 **길에서 만난 사람들**
한국살이의 매력은 이것!



상생과 화합의 이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We will strive for
immigration policies
that put an emphasis on
coexistence and unity.

공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찬란한 햇살에 빛나는 여름

풍경처럼 공존인 여러분의 나날도 눈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는 출입국 60여 년의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시기였습니다.

출입국 기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 · 외국인청’과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로 개편하여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 · 외국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다가올 5년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의 5개년 계획인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8-2022)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4.2%인

218만 명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화합의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ear Gong-zone readers,

It's summer time – a season filled with sun and a lot of fun. I hope you enjoyed your

summer holidays with plenty of time to soak up the sun and refresh yourself.

This year is a very significant milestone year fo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n our 60

years of history.

This year, multiple subregional immigration offices were spun off from existing

immigration offices, making a pre-emptive move to be fully prepared for streamlined

and speedier immigration processing to ensure maximum satisfaction from immigration

office visitors.

This year also saw the completion of “the Third 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 – a

five-year guideline describing the direction of the country's immigration policies. This

Master Plan will be implemented from 2018 to 2022 and is geared towards

strengthening and supporting Korea's growth engine

As of December last year 4.2% of Korea's population – or 2.18 million people – are

foreign residents and we expect this number to rise in the coming years. In this

backdrop,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by winning support from both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will strive for a nation where human rights and diversity are highly

valued by designing immigration policies that put an emphasis on coexistence and unity.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Cha, Gyu-geun

차 규 근



표지이야기

뭄바이에서 온 나게쉬 씨와
서울에서 온 민영 씨가
딸 리아와 함께 터를 잡은 곳, 춘천.
색색의 풀과 꽃, 한국과
인도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리아 하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
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www.ses.go.kr



- 22 출입국에서 알려드려요!**
· 2018년 상반기 이렇게 일했습니다
· 출입국을 칭찬합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해외에서도 이용하세요

- 28 세계인의 날**
함께라서 더 좋은 어울림의 무대
- 34 전문가 기고**
한 지붕 아래 내 · 외국인,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 36 공존 PLACE**
업그레이드! 인천공항출입국 시즌2

- 40 Special Focus**
한 · 아세안 관계, 그 잠재력을 보다

- 42 출입국 사람들**
새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만나다

- 45 출입국 Q&A**
알아두면 유용한 출입국 상식

- 46 출입국 NEWS**
상반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뉴스

- 50 앱북 광고 · Event**

- 51 국번 없이 110번**
복지 · 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의 아내 김희선 씨. 원래 이름은 마이 김 히옌으로
200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신 선수와 결혼했다.

나의 자람 은겸이, 병철이, 그리고 금동이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낳았지만 잘 자라준 은겸아, 병철아. 너희가 아기였을 때 아프면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 그때는 한국어도 서툴고 운전도 못 해서 버스를 타고 무작정 병원으로 찾아갔었어. ‘아기는 괜찮아요?’ 묻는 것밖에 못 했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됐어. 나중에는 은겸이를 안고 운전면허학원에 다니면서 면허를 땀어. 지금은 엄마 운전 잘하지?

아빠 훈련에 농사일에 바빠서 가족들이 함께할 시간이 적어서 늘 아쉽다. 저번에 평창에서 경기 본 뒤에 다 같이 주문진에 가서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했던 게 참 좋았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족들 모두 함께 가서 의미가 있었던 거야. 4월에는 5년 만에 베트남 동탑(Dong Thap)에 있는 외갓집에 다녀왔잖아. 날씨가 더운데도 오토바이 타니까 그렇게 신나하다니. 병철이는 방학에 또 가자고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은 엄마가 임신 중이라 못 가니까 막내가 태어나거든 다시 가자. 약속!

아빠를 닮아 칼칼한 음식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는 우리 은겸이. 다른 김치찌개 다 먹어봐도 엄마 김치찌개만한 게 없다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 은겸이는 주변에 나눠주는 걸 좋아해서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소풍날 예쁘게 도시락을 싸주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 나눠줬었어. 처음에는 우리 딸은 먹지도 못해서 속상했는데 다른 엄마들한테 들으니 애들이 은겸이 엄마처럼 도시락 싸달라고 해서 힘들다고 하더라.

아기 때부터 몸이 약해 늘 걱정스러웠던 병철이. 얼마 전에 엄마랑 둘이서 포켓몬 영화도 같이 보고 왔잖아. 병철이가 즐거워해서 엄마도 기뻐서. 무뚝뚝한 엄마라 늘 미안하고, 둘 다 씩씩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활발하고 씩씩하게, 너희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금메달과 함께 와준 금동아. 3개월밖에 안 돼서 얼굴은 아직 모르지만 예쁘게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오렴. 아직 모르는 게 많은 엄마지만 잘 지내보자.

엄마가

뭄바이에서 서울, 5000km의 거리를 넘어 춘천에서 만나다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강원도 춘천. 도심 밖 산자락에 난을 굽는 가마와 깔라쉬(kalash, 인도의 물양동이)로 꾸며진 집이 있다. 15년 전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도에서 한국으로 온 나게쉬 이퍼 씨와 서울에서 살아온 일러스트레이터 김민영 씨, 딸 리아의 보금자리다. 색색의 식물과 양국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리아 하우스'의 주말 풍경을 들여다 보았다.

글 박지형 사진 김윤희



복숭아 과수원이 펼쳐진 춘천 변두리 마을.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나고 자란 나게쉬 이퍼 씨와 서울에서 살던 김민영 씨 부부가 여섯 살 난 딸 리아와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주말을 맞아 세 가족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기 인형이 리아의 자장가에 잠들면 엄마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마당에서 아빠와 힘겨루기를 한다. 부녀가 홀연히 나가 뒷산을 산책하다 지렁이를 잡아온 적도 있다.

산을 마주 보고 있는 세 가족의 보금자리에는 식물이 쑥쑥 자라고 있었다. 화단에는 색색의 꽃이 절정에 이른 색을 뽐내고, 집 뒤쪽 텃밭에서는 식탁에 오를 상추, 바질, 토마토 등이 자란다. 어릴 적부터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농부의 아들' 나게쉬 씨는 성장을, 색과 모양의 조화에 민감한 민영 씨는 디자인을 담당한다. 틈이 날 때마다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며 돌본 덕에 식물은 보답이라도 하듯 바빠 열매를 틔우고 키를 늘린다.

부부가 처음 이 마을을 알게 된 건 결혼 전 데이트를 하면서였다. 복숭아 꽃이 흐드러지게 핀 과수원이 마음에 꼭 들었다. 이곳은 곧 둘만의 장소가 되었다. 신혼 때부터 아파트 생활을 했지만 주말 농장이 아닌 우리만의 밭에 대한 꿈이 커졌고, 층간소음 때문에 뛰지 못하는 리아를 위한 공간이 절실했다. 그래서 이곳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셋을 위한 장소가 된 곳으로. 농가가 많은 동네라 가까이 리아의 또래 친구가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텃밭과 아이가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만족감이 더 크다.

한국과 인도를 잇다

뭄바이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나게쉬 씨는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던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행을 결심했다. 여러 대학을 알아본 끝에 춘천의 대학에 2003년



It was winter of 2005 when the two first met. Nagesh posted on the internet that he would teach Hindi, the official language of India. Minyoung learned the language and culture of India, which remained as a strong memory, and Nagesh made a friend who understands the culture of India in a foreign country. They became lovers after two years of friendship.

입학하게 된 나게쉬 씨.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영어 수업이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도 없었다. 강의와 연구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필사적으로 익혀야 했다. 100% 한국어로 진행되는 어학원 수업을 따라가다 보니 실력이 금세 늘었다. 한국드라마로 공부를 하며 전공인 식물병리학 연구도 진행했다.

서울에서 자란 민영 씨는 10대 시절부터 인도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다. 인도는 다채로운 풍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매혹의 땅이었다. 20대가 되어 첫 배낭여행지로 택한 곳은 당연히 인도. 전국을 여행하며 한국과 완전히 다른 문화와 도시마다



다른 분위기를 눈에 담았다. 드넓은 사막이 펼쳐진 북서쪽 라자스탄 주부터 온통 초록으로 뒤덮인 남부 케랄라 주까지, 각양각색의 풍경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독특한 색감은 그림을 전공하는 민영 씨를 사로잡았다. 먼 곳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관심과 잦은 교통 연착 등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었지만 그마저도 추억으로 남았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05년 겨울. 나게쉬 씨가 인터넷에 인도 공용어인 힌디어 과외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민영 씨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인도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고, 나게쉬 씨는 타지에서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는 친구를 얻었다. 그 후로 2년 동안 친구로 지내던 두 사람. 나게쉬 씨가 박사 논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서였다.

Ria was interested in the scene of India that is crowded with many family members unlike her family of three people. Everything is a fun game such as stepping on the mud, eating cane sugar and climbing the heap of cotton at grandpa's farm, in addition to seeing elephants and monkeys on the street.

닮은 듯 다른 두 나라

서로를 알아가며 두 사람은 한국과 인도의 닮은 점들을 발견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문화부터 사소하게는 어린 시절 즐겨 하던 놀이까지. 인도에서는 나무 열매로 공기놀이를 하고, 윗놀이와 닮은 '파치시'라는 게임도 있어 함께 자란 양 어릴 적 추억을 공유하고는 했다. 또 김치처럼 식사에 꼭 필요한 음식이 있으니, 바로 망고피클. 겨울에 김장을 하듯 여름철 이웃과 모여 망고피클을 담는 문화가 있는데 모양도 깎두기와 비슷해 친근하다. 또한 인도의 문화적 다양성 덕에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적었다. “인도는 지역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인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못 느꼈죠.”

그렇다면 결혼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처음에 양가 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했다. 정략결혼이 일반적이던 집안에서 나게쉬 씨가 처음으로 연애결혼을 선언한 것. 하지만 두 사람의 끈질긴 설득 끝에 부모님의 마음도 바뀌었고 결국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난생 처음 한국 땅을 밟는 나게쉬 씨의 부모님을 마중 나간 건 민영 씨였다. 첫 만남이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항에 갔으나 아빨 씨, 마하리슈트라 주의 언어인 마라티어를 사용하



는 부모님과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몸짓과 짙막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민영 씨의 노력 덕인지 부모님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손재주가 있어 인도의 주식 빵인 차파티를 얇고 둥그렇게 만드는 실력도 한몫했다. 결혼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 부부가 인도에 방문한다. 가족 중심 문화라 부모님뿐 아니라 형제와 사촌, 육촌 친척을 두루 방문하는 바쁜 일정이다. 하지만 세 가족이 지내는 한국의 집과 달리 친척들로 북적이는 인도의 풍경이 리아에게는 신기하기만 하다. 또한 할아버지 농장에서 진흙을 밟고 사탕수수를 베어 먹고 목화 더미에 올라가는 일도, 동물원이 아닌 길에서 코끼리와 원숭이를 만나는 것도 모두 놀이다.

나를 발견한 도시, 춘천

딸 리아의 이름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부부가 고심해서 붙였다. 인도어로는 ‘흐르는 물’이라는 뜻. 리아는 아기 때부터 부모를 걱정시키는 일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육아관도 비슷한 부부는 아이가 그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일까 리아의 꿈은 매일매일 바뀐다. 가수가 되고 싶었다가 일러스트레이터인 엄마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가 또 다른 날에는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연구원 아빠처럼 ‘세균에 맘마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요즘 부부의 주된 고민은 아이 교육이다. 차츰 자신의 다름을 인식하기 시작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하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주변 국제 커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하다. 부모뿐 아니라 교사와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부부는 입을 모았다.

The couple carefully named their daughter 'Ria', so that the name can be called easily anywhere in the world. Ria means 'flowing water' in Hindi. Ria has been growing up well without causing her parents' worries since she was a baby. The parents with a similar childcare philosophy want her to experience various things and to do what she wants.

“만약 서울에서 지냈다면 한국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나게쉬 씨는 눈을 돌리면 고요하고 넉넉한 자연이 있는 이곳, 춘천이 좋았다. 경찰관이던 아버지를 따라 자주 이사를 한 나게쉬 씨에게 춘천은 가장 오래 살아온 도시가 되었다. 서울의 변화기에 익숙했던 민영 씨는 필요한 것들이 가까이 있는 도시를 떠나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야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은 듯하다. 나게쉬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알지 못했을 감각이다.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민영 씨의 말소리가 찾아든 자리에 고요가 내려앉는다. 이내 들려온 리아의 발소리와 웃음소리, 이곳에서는 그걸로 충분하다.

삼인삼색, 이 가족의 식탁

춘천사람 아니랄까 나게쉬 씨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꼽은 것은 닭갈비. 평소 매운 음식을 즐기는 데다 처음 맛본 닭갈비가 카레가루를 넣은 것이라 그렇지 친숙해 맛을 들이게 됐다. 또 다른 ‘소울푸드’는 땅콩 콩국수다. 원래 찬 음식을 먹지 않지만 부부가 우도 여행을 하다 먹은 뒤부터 유일하게 먹는 찬 음식이 되었다. 집에서 콩국수를 만들어 먹을 때도 땅콩은 필수. 땅콩을 갈아 넣은 콩국수만 있다면 여름이 든든하다.

민영 씨가 좋아하는 인도 음식으로는 남부식 팬케이크인 ‘도사’가 있다. 세 가족 모두가 좋아해 집에서 즐겨 먹는다. 쌀가루 반죽을 얇게 부친 것으로 주로 감자 커리를 곁들인다. 기름기가 많고 밀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북부 음식보다는 쌀가루를 쓰고 향신료가 다양한 남부 음식을 선호한다는 세 사람. 이처럼 선택지가 여럿이다 보니 제각기 다른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다. 나게쉬 씨는 매운 커리, 매운 걸 못 먹는 리아는 파스타, 민영 씨는 한식, 이렇게 삼인삼색 다채로운 식탁이 완성된다.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식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아이의 탄생과 첫 생일 축하하기

The Celebration of the Birth Baby and the First Birthday

아이의 탄생, 그 어느 소식보다 반갑고 경사스러운 일이죠.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새끼를 꼬아 만든 금줄을 때문에 걸어 탄생을 알리고 액운을 막고자 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생일에 ‘돌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 축하하는 풍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축복은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는 법! 세계 곳곳에서는 탄생과 첫 돌을 어떻게 축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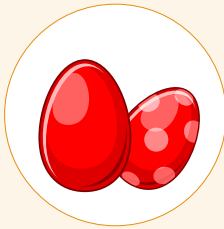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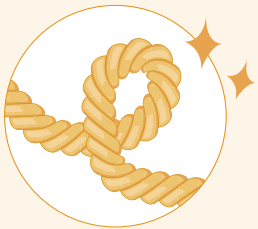
일러스트 강주연 정리 박지형

The birth of baby is happier and more welcome than any other events. When a baby is born, we hang a straw rope on the gate to ward off evil spirits in Korea. On the first birthday, we hold a magnificent birthday party. Celebration is cannot be too much! Let’s see how countries in the world celebrate the birth of baby and the first birthday.

액운은 물렸거라! 탄생을 알리는 한국의 금줄

Go away, bad spirit! A Straw Rope of Korea That Tells The Birth of Baby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새끼줄을 꼬아 만든 금줄을 때문에 걸었다. 숯과 한지를 주로 엮고 성별에 따라 남자아이는 붉은 고추를, 여자아이는 소나무 가지를 꿰었다. 이때 가족 이외의 사람은 금줄이 쳐진 문을 넘어서는 안 된다.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액운을 쫓아 아이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금줄은 보통 삼칠일(21일) 동안 치고 거두었다. 현재는 보기 힘든 풍습이지만, 해로운 미생물을 흡수하는 숯을 엮어 질병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려 했던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



행운과 축복의 상징 중국의 붉은 달걀

A Symbol of Luck and Blessing, Red Eggs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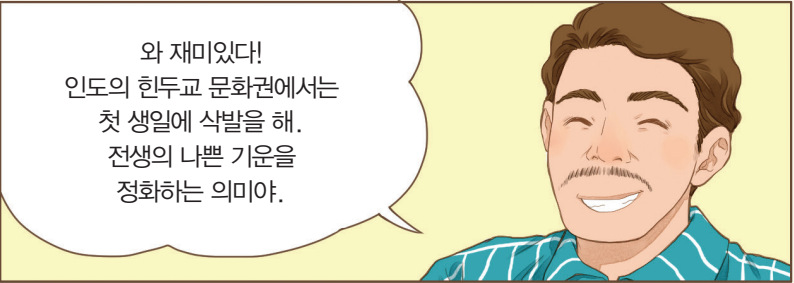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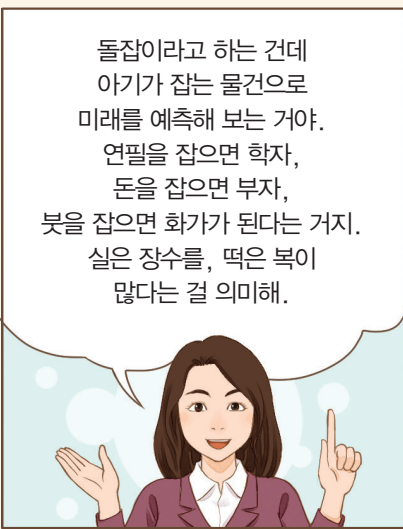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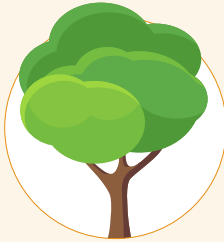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붉은 달걀(红鸡蛋)을 이웃에 돌리는 풍습이 있다. 중국인이 사랑하는 행운의 색 빨강으로 탄생을 상징하는 달걀을 물들인 것이다. 여자아이는 홀수, 남자아이는 짝수의 달걀을 돌린다. 염색된 천으로 삶은 달걀을 닦아 껍질을 붉게 물들이는 것이 정석이지만 최근에는 붉은색 포장지에 싸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 기쁨을 나누고 재앙을 물리치는 의미를 담은 붉은 달걀은 지역에 따라 출산 및 생일, 결혼식, 보름 등 특별한 날 두루 나눠 먹는 음식이다.



아이와 함께 쑥쑥 자라나길 자메이카의 탄생 나무

Grow well with the Baby, Planting Tree of Jamaica

남아메리카의 자메이카에서는 아이를 낳은 뒤 태반과 탯줄을 땅에 묻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다. 탄생수 또는 탯줄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는 아이와 함께 자라나며 궁지의 근원이 되어준다. 또한 나무가 자라는 땅과의 영속적인 연결을 상징하기도 한다.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코코넛 나무와 빵나무를 주로 심는데, 나무가 쑥쑥 커가는 모습으로 미래의 부와 자손의 번영을 점친다고 하니 키 큰 나무가 인기일 터. 훗날 아이를 위한 그늘을 만들어 줄 나무는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와 같다.



제천 다솜고 정승환, 정승욱, 정승진

눈빛으로
통하는
든든한
‘쓰리백’
(3Back)



“

승환, 승욱 군은 여느 고3처럼 졸업 후가

걱정되지만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승진 군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언젠가 나만의 정비소를 운영하는 게 목표다.

”

충북 제천에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둘도 아닌 세 명의 형제가 있다. 바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승환, 승욱, 승진 군이다. 다문화 청소년 기술고등학교인 이곳에서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배경자녀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한국어 수업과 전공에 따른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경남 진주 출신의 삼형제는 어떻게 다솜고등학교에 오게 됐을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삼형제는 한국 출생의 한국국적이다. 한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다 가족이 필리핀의 불라칸으로 이주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래서 아직은 필리핀의 타갈로그어가 더 편하다. 그러다 2012년에 첫째 승환 군이, 1년 뒤 두 동생이 차례로 귀국해 진주에서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녔다. 졸업 후 중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승환, 승욱 군이 다솜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형들을 따라 승진 군도 올해 1학년이 됐다. 두 나라에서 살아보니 한국이 더 살기 좋다는 삼형제. “날씨도 좋고 음식도 더 맛있어요.”

막내 승진 군의 입학으로 삼형제가 모두 모여며 언제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든든한 가족이 가까이 있어 좋은 반면 누구의 형, 동생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첫째 승환 군은 “공부 열심히 하고, 축구 연습할 때 다치지 말고 실습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며 내년부터는 혼자 학교에 다닐 막내 동생을 묵묵히 걱정한다. 둘째의 특징인지 승욱 군은 유연하게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운다. 어릴 적엔 형과 많이 다투었지만 지금은 한국어 실력도 성적도 형이 가장 좋다며 추켜세운다. 축구 이야기에 눈을 빛내는 셋째 승진 군은 의외로 셋 가운데 요리 실력이 가장 낫다. 엄마 옆에서 배운 덕이라는데 그래서 라면 담당이 되었다.

형제는 학교에서 일반 교과과목과 함께 단계별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실습 시간에는 용접, 선반, 밀링머신 기술 등을 익힌다. 위험한 작업이지만 실력이 있어 다친 적은 없다며 승욱 군은 너스레를 떠다. 마지막 학기를 앞둔 승환, 승욱 군은 여느 고3처럼 졸업 후가 걱정되지만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특수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한국어 능력시험과 다른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취업이 목표인데 군입대를 먼저 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그 와중에도 친구들과 농구하고 힙합 음악을 듣는 게 즐겁다. 이제 첫 학기를 마친 승진 군의 최대 관심사는 축구. 빠른 달리기가 장기인 다솜FC의 공격수답게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야기에 눈을 반짝인다.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아 언젠가 나만의 정비소를 운영하는 게 목표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삼형제에게도 꿈을 위한 준비를 하며 툼툼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보내던 여름 방학이 지나가고 개학이 찾아왔을 것이다. 여름의 강렬했던 햇빛을 머금어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갈 삼형제의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Deungdeunggeori



서늘한 나무살 사이로 바람이 솔솔, 등등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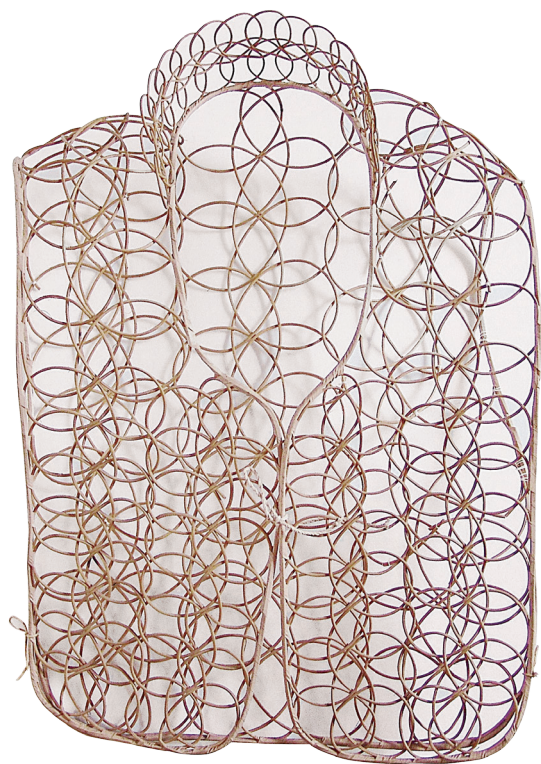


사진: 삼척시립박물관

VS

Cooling Shirts



기능성 소재로 열기와 습기를 한 방에, 쿨링셔츠



조선 시대에 겹옷 아래 입거나 소매를 짧게 만들어 간이복으로 입은 '등거리'는 소매 없이 등에 걸쳐져 된 옷을 뜻한다. 베로 만든 것은 베등거리라 하여 맨살에 바로 입었고, 무명으로 만든 건 봄가을철 속옷 위에 입었다. 등나무로 엮어 만든 등거리는 '등등거리'라 부른다. 등나무의 가는 가지를 엮어 조끼 모양으로 만들어 여름철 적삼 밑에 받쳐 입었다. 옷이 땀에 달라붙을 염려가 없고 바람이 잘 통해 여름나기에 그만. 마찬가지로 등나무를 엮어 만든 등토시를 팔에 착용해 함께 사용했다. 소매 없는 형태가 대부분이라 등나무로 만든 배자(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 없는 옷)라 하여 등배자라고도 불렀다. 열대야의 동반자, 죽부인을 몸에 걸쳤다 상상해 보라. 나무 표면의 서늘한 기운이 고마울 것이다.

날마다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폭염'의 역사를 새로 썼던 올해 여름. 패션업계에서는 얇고 바람이 잘 통하는 리넨, 시어셔커 등 대표적인 여름 옷감뿐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열기를 식혀줄 냉감 소재가 주목을 받았다. 냉감 소재로 만든 쿨링셔츠는 통풍, 건조는 물론 습기 흡수, 자외선 차단, 항균 기능까지 탑재했다. '쿨맥스' 섬유는 땀을 빠르게 흡수한 뒤 바깥으로 배출해 피부를 건조시키고, PCM 소재는 열을 흡수하는 기능으로 적정체온을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췄으니 이제 필요에 맞는 옷을 선택하면 된다. 더위와 습기가 기승을 부린다 한들 인간의 활동 욕구를 막을쏘냐. 패션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쿨링셔츠만 있으면 불볕더위가 다시 온다 해도 두렵지 않다.



수흐체체 씨(Сүх цэцэг)

나눔에 국적이 필요한가요

글 김경주 사진 나우연

‘딸랑~’ 중앙아시아인들이 모여 사는 서울 광희동 뉴금호타워의 몽골식료품점 ‘울란바타르’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수흐체체 씨는 소녀처럼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한다. 그녀가 한국에 몽골식료품점을 열고 운영한 지 벌써 14년 차.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를 상호명으로 내건 수흐체체 씨의 가게는 고 향이 그리운 재한몽골인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공간이 된 지 오래다. “몽골에서도 식품업 관련 사업을 했었죠. 아시아 시피 몽골은 경제가 어려워 사업에 곤란을 겪었어요. 해외로 눈을 돌리던 차에 먼저 한국에 자리 잡은 친척의 권유로 한국에 오게 됐죠. 이곳에 몽골사람들도 많고, 나라도 살기 좋다고 하더군요.”

한국생활 초기에는 당연히 외국인이 겪을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많았다. 수흐체체 씨가 겪었던 난관 중 특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문화는 한국의 ‘보증금’ 관례였다고. 몽골에는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여러 문제를 주변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하고, 몽골식료품점을 시작한 그녀. 운이 따랐던 걸까. 식료품점은 점점 성황을 이뤘다. 입소문을 타고 몽골인뿐만 아니라 음식문화가 비슷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그녀의 가게를 찾아오게 되었다. 한국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수흐체체 씨.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몽근하게 피어났다. 그 무언가는 바로 ‘나눔’의 마음이었다.

“몽골에 살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정신없이 바빠 잊고

있었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풍족함을 가져다 준 한국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구요.”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중구청을 통해 2014년부터 명절마다 쌀이나 라면 등을 기부하고 있다.

둘째 아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어머니가 있는 한국에 들어온 둘째 딸 김하은 씨(한국이름)는 어머니의 ‘나눔’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고 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어린이날이 되면 엄마가 음식이나 물품을 한가득 준비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모습이 기억나요. 엄마가 저희 삼남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눔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누면 된다고요. 엄마의 이런 마음가짐과 행동이 참 자랑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수흐체체 씨는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을 통해 모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고 있다.

오랜 외국생활에 외롭지는 않을까.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자주 한국에 방문하는 남편과 아이들,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와 친척들, 그리고 가게 손님과 몽골 친구들 때문에 외로울 새가 없다고. 특히 요즘 수흐체체 씨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바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까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으로 건강을 챙기고, 가게를 꼼꼼히 운영하며 일주일에 두 번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들으러 이화여자대학교로 향한다. 그동안 비자 연장 문제로 몽골에 1년에 한 번은 다녀와야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올해 그녀의 목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성실히 수업에 참여해 마지막 5단계가 끝나간다.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거예요.”

길 위에서 물었습니다 한국살이의 매력은 이것!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을 찾은 재한외국인들.
그들에게 한국살이의 매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정리 편집실 사진 나우연, 박지형



리야니 Riya & 이카 Ika (Indonesia)

빠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생활하기에 좋죠. 또,
인도네시아는 건기와 우기
두 계절로 나뉘는데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 참 좋아요.
Luar biasa! Sistem lalu
lintas yang cepat dan
nyaman. Baik untuk
hidup. Apalagi, Indonesia
terbagi atas dua musim,
yaitu musim kering dan
musim hujan tetapi
Korea memiliki empat
musim. Sangat baik.



신자오 Xin Zhao (America)

앱 구축이 잘 되어있어서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또, 도시와 자연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어디서나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The public transportation is very affordable and fast
and the map application is well established as well.
I think anyone can get accustomed to the city easily.
There are a lot of fun things anywhere.



페르난도 Fernando & 제시카 Jessica (Mexico)

한국에 산 지도 1년이 됐는데 치안이 좋고 안전해서 언제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게 장점이예요. 그리고 관광 명소가 도시 곳곳에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He vivido en Corea del Sur durante 1 año. Creo que la seguridad es
muy buena, por eso, podemos caminar en cualquier momento. Y es muy
agradable buscar facilmente atracciones turísticas por toda la ciudad.

잔다 Zanda (Latvia)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언제나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언제든지 가까운
산이나 공원에 가서 고요를
즐길 수 있답니다.
Cilvēki ir ļoti laipni un
vienmēr grib palīdzēt.
Ja ir bijusi slikta diena
var vienkārši doties
pastaigāties vai
pasēdēt parkā un
izbaudīt klusumu.



앨리스 Alice (Taiwan)

각종 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이
편리해서 적응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날씨도
쾌적해서 살기에 좋고, 일 처리가
빠른 점이 마음에 들어요.
各種設施和公共交通方便，只要適
應每個人都能簡單利用。而且天氣也
晴朗，適宜生活，辦事也非常快，
很讓我滿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상반기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주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정리 편집실

1월

외국인
세금 체납
꼼짝 마

비자 연장 전
체납 여부 확인

TAX

REJECTED

전국 38개 출입국 기관으로 확대 시행
납부 명령에 불이행할 경우 체류기간 제한

3월

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증합 대책 발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피해 신고 지원 등 신고 활성화,
성폭력 피해자 체류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시 '성폭력 방지' 콘텐츠 강화 등 예방 교육

3월

귀화를 위한 체계적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객관식 귀화필기시험을 작문, 구술 등이 포함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2월

새로운 5년을
준비하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18~2022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3월

국제결혼을 준비한다면?
인권교육은
필수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 추가

4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낼래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손주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부모의 체류 허용

비자 제도 개선 ①

숙련된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 충족 시 장기 체류 비자(E-7-4) 허용(1월)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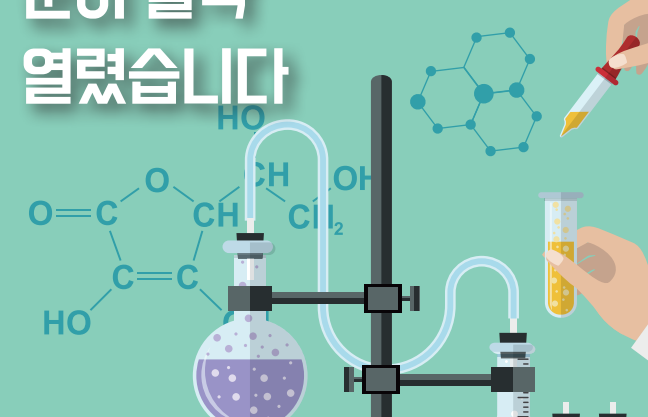
불법체류 뿌리 뽑는다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11주)으로
불법체류자 8,351명(전년 대비 14%↓) 적발,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6주)으로 브로커 등 1,160명 적발

비자 제도 개선 ②

전문인력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3월),
정부·공공기관에서 초청한 과학자에게 단기취업(C-4) 전자비자 발급(4월),
특정활동(E-7) 비자 허용 직종(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등) 신설(5월)

이제, 독일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 받자!



우리 국민은 기존의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비롯해
독일(하반기)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출입국을 칭찬합니다!

출입국에서 외국어 공부까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주출입국사무소에서 이주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원어민에게 무료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청주출입국에 고마움을 느껴 오던 차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청주출입국사무소와 담당 직원은 물론 원어민들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김진희**

• 원어민과 함께하는 시민 외국어 교실 운영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역 주민이 원어민 강사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게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시민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

통영출장소 박성욱

2개월 전부터 계획하여 5월 5일부터 3일 동안 대마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새벽에 출발하기 위해 전날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 했는데, 총 8명이 전국 각지에서 오다 보니 도착 시각이 각기 달랐습니다.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 모두를 기다리느라 출입국 직원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일하느라 짜증 날 만한데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일행 모두가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윤선장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저는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고영덕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경로급식 및 독거어르신 밀반찬 전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허유정 주무관님과 이주민분들이 자원봉사를 나와 어르신들 무료경로급식, 밀반찬 준비, 설거지, 그리고 주변 환경 정리까지 봉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고영덕**

• 이민자 네트워크 정기 급식봉사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는 '출입국 봉사단체'를 구성하여 사회복지관 2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준비 및 배식, 설거지 등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참여마당-칭찬합시다)에서 출입국 직원을 칭찬해 주세요!

자동출입국심사, 해외에서도 이용하세요!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최초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도입한 이후, 2018년 현재 내·외국인을 통틀어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자동출입국심사는 대면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지문과 얼굴 인식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국민은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경우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 이상(1,537만 명, 2018년 6월 말 기준)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 이용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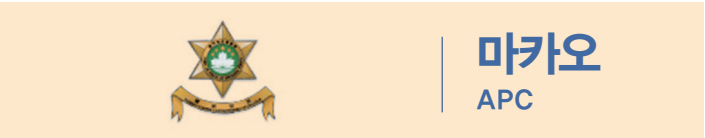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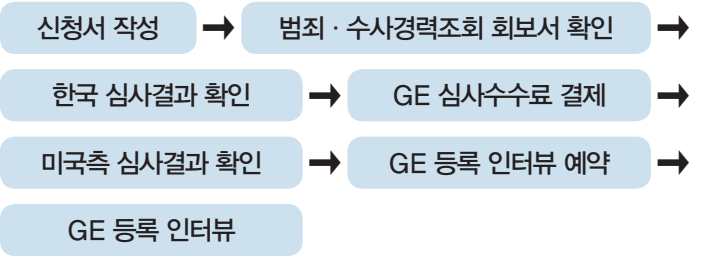


이 제도는 협약을 통해 상호 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독일과도 협약을 체결해 올해 말부터 독일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서비스마다 등록 대상과 절차가 다르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수여권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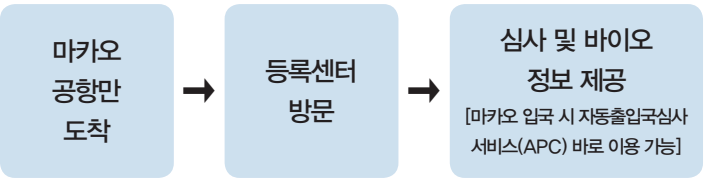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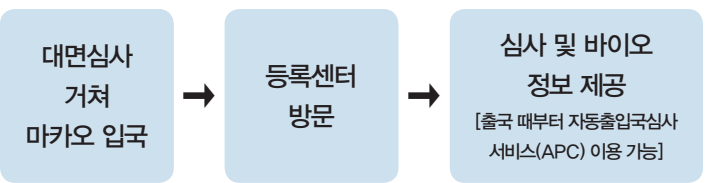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만 11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

「마카오 공항만 등록센터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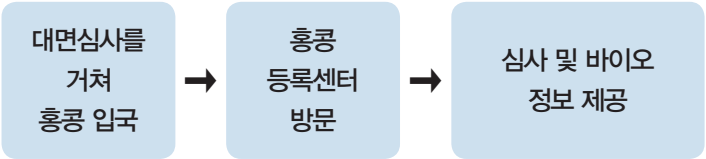


「이민국 본부 및 육로심사터미널 등록센터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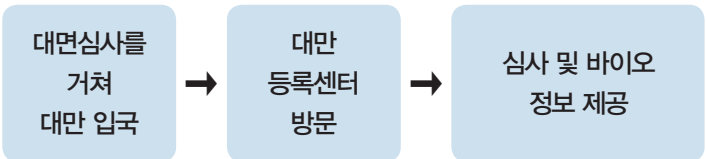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키 140cm 이상 만 17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최종 승인된 경우 등록일부터 여권 만료일까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e-Gate) 이용 가능. 방문할 때마다 사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께라서 더 좋은 어울림의 무대

벌써 10년이 흘렀다.
2007년 제정된 '세계인의 날'은
한 번의 10년을 돌아
다시 10년을 시작하려 한다.
변화의 문턱에서
11주년을 맞은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을 가 보았다.
세계인이 조화를 이루는
어울림의 무대. 이처럼 함께라면
더 좋지 아니한가.

글 박지형 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계인의 날

The 11th Together Day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의미가 큰 기간이다.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제정 기념식을 연 뒤 어느덧 11년. 새로운 10년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5월 18일 열렸다.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이지만 일요일인 걸 고려해 이틀 앞당겨 연 것이다.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각국 전통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을 볼 수 있었다. 흐린 날씨지만 홍보 포스터의 화사한 노란색이 봄의 흥취를 살리는 가운데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포토존에서 저마다의 추억을 남겼다. 눈에 띄는 올해의 슬로건은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생과 화합을 강조하는 문구에서 국적, 인종, 문화 등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그려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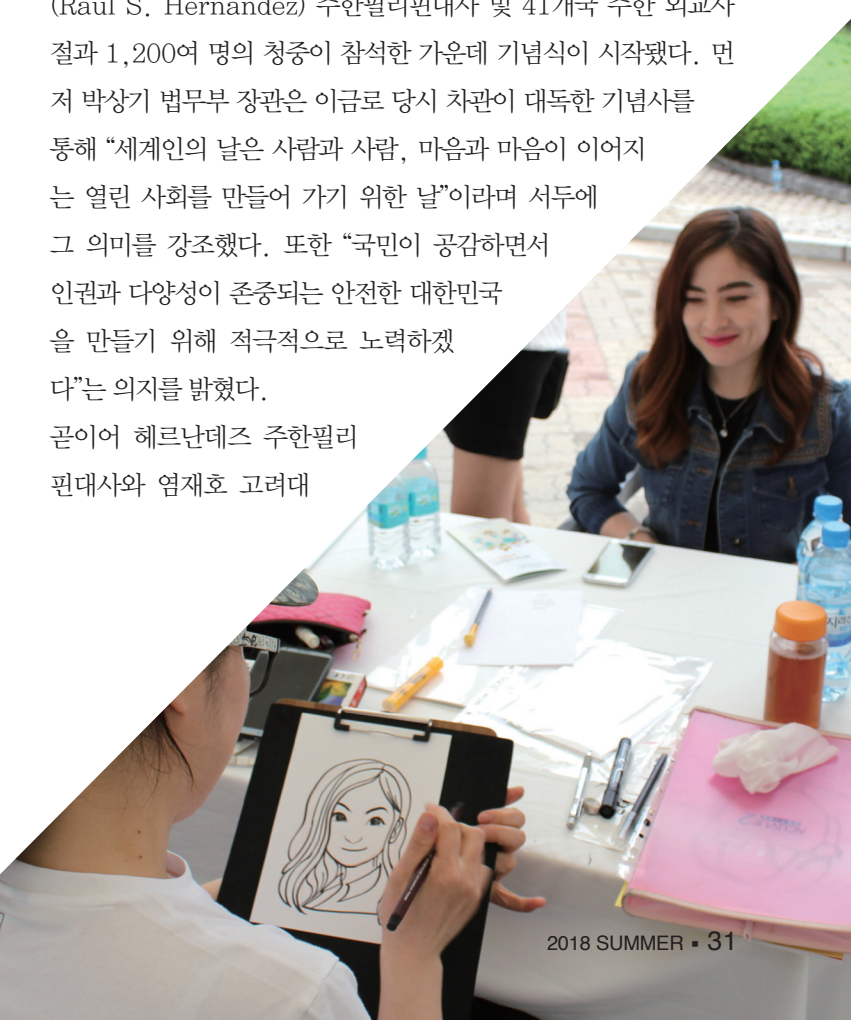
야외 행사장에는 전통 놀이 체험, 캐리커처, 전통 악기 전시 및 버스킹 공연, 공예품 만들기 등 각 나라의 특색 있는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나던 사람들은 각 나라의 공예품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받아 들고 즐거워했다. 어린이들의 관심사는 단연 활동적인 체험이 가능한 전통 놀이. 밧줄로 된 고리를 던져 막대에 거는 와나게(輪投げ)와 줄로 연결된 공을 던져 받침대 부분에 올려놓는 켄다마(剣玉)는 일본의 놀이다. 중국 놀이로는 모래시계 모양의 본체를 줄을 이용해 양손으로 조종하는 공쥬(空竹)가 있다. 어디선가 경쾌하고 흥겨운 선율이 들려와 따라가보니 전통 악기 체험부스에서 터키의 민속 현악기 바울라마(Bağlama) 연주가 한창이었다. 터키의 종교 의식 및 축제에서 널리



연주되는 악기로, 기타와 닮았지만 물방울 모양에 뒤가 불룩하고, 울림 구멍이 없어 기타보다 짙한 소리가 난다. 점점 퍼지는 고소한 냄새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을 이끄는 향의 정체는 태국의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전병 튀김, 뽀빠아 텃(ปอเปี๊ยะทอด). 향긋한 내음에 사람들이 몰려 튀기자마자 빠르게 동이 난다. 이밖에 세계의 간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와 각국 전통의상을 그려 넣는 펜던트 만들기 부스도 인기였다. 또한, 많은 재한외국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답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업무 상담 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 출입국 기관에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5월 23일부터 3일간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재한외국인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축제를 축제답게 만드는 힘은 다양한 구성원을 감싸고자 하는 세세한 준비 단계에서 나올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회를 향하여

오후 2시, 이금로 당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라울 헤르난데즈(Raul S. Hernandez) 주한필리핀대사 및 41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1,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시작됐다. 먼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금로 당시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세계인의 날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날”이라며 서두에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면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곧이어 헤르난데즈 주한필리핀대사와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평창 동계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의 아내 김희선 씨가 재한외국인 대표로 무대에 올랐다. 김희선 씨는 200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2011년 국적을 취득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기쁜 일들이 찾아온 것 같다”며 소감을 밝힌 김 씨. 그는 긴장돼서 손이 덜덜 떨렸으며 웃어 보인 뒤 남은 행사를 즐길 채비를 했다.

다음 순서는 세계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종합지원센터 신조야 대표를 비롯해 총 17명이 표창을 받았다. 신 대표는 2004년부터 광주에 이주한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귀환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된 정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의 기념 촬영 후에는 축제 분위기를 북돋을 공연이 펼쳐졌다. 고려인 동포 자녀로 구성된 댄스팀 ‘너머’의 무대와 우렁찬 기합과 함께 선보인 재정착 난민 아동 태권도단의 시범에 큰 호응이 이어졌다. 가수이자 뮤지컬배우인 소나와 세계 각지의 전통의상을 입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아름드리 합창단’의 음악 선물로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봄날 펼쳐지는 어우러짐의 향연

기념식을 시작으로 ‘세계인 주간(5월 20~26일)’에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펼쳐졌다.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와 지자체, 외국인 지원 단체가 마련한 어울림과 만남의 장이다. 대구에서는 5월 19일, 최대 변화가인 동성로에서 ‘함께 감시데이’라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가 세워졌고, 전통 춤 및 K-pop 공연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19, 20일 이틀간 열린 축제가 있었으니 바로 ‘제주 다민족문화제’. 차량이 통제된 제주시청 앞 도로에는 각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로 가득했고, 게임 이벤트, 바자회, 전통 음식 등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갖춰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수원시가 주최한 ‘다문화 한 가족 축제’는 조금 늦은 6월 17일,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됐다. 체험 부스는 물론 외국인 주민 상담코너를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중앙 무대에서 선보인 세계 의상 패션쇼는 각 나라의 의복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이벤트였다.

봄날 야외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거리를 찾는다면? ‘투게더 데이 Together Day’라는 영문명에 알맞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를 놓쳤다면 2019년 5월, 12주년 세계인의 날을 놓치지 마시라. 나들이로도 손색없고, 이웃에 사는 세계인과 가까워질 멋진 기회가 열려 있다.





한 지붕 아래 내·외국인,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체류 외국인 226만 시대. 다방면으로 활약하는 외국인이 방송을 통해 조명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긴장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진 이래 내·외국인 간 갈등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해왔다. 재한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편익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상생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글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2018년 4월 기준으로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26만 명을 헤아린다. 이들은 학계, 정계, 산업계, 스포츠, 대중문화계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와 미국 출신 이만열(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학계에서, 이참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관계에서, 하일(로버트 할리), 이다도시, 타일러 라쉬, 샘 오취리는 대중문화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외국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주로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이민자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숫자로는 그리 많지 않지만, 난민 또한 그들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들과 한반도 내에서 동거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과 이들과의 관계가 조화롭다고 할 수는 없다. 상생을 위한 여러 이민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내외국인은 늘 긴장 속에서 동거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긴장 속 동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민으로 세워진 국가와 새로이 이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이러한 내외국인 간의 긴장은 늘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역사

갈등의 주요 이슈는 경제적인 측면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취업과 관련된 노동시장, 사회통합과 관련된 복지 재정,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난민 인정 등에서 이러한 시각차이가 두드러진다. 노동시장에서의 갈등은 주로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인에 의해 내국인의 일자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에서 발생해 왔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의 배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독일, 중동 등 각 나라로 인력을 수출하는 전통적인 노동력 수출국의 범주에 속해왔으나 ……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단순기능인력 부족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 사업주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1월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의 길을 열어주었다.”¹⁾ 이후 여

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94년도 산업연수생에 대한 취업연수제도(2000), 외국국적동포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관리제도’(2002)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2004.8),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2007) 도입 등으로 변천해 왔다. 과거의 역사를 언급한 이유는 단순기능인력 분야의 원활한 인력 공급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즉,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시작은 우리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였다. 외국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성과 금전적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향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노동시장으로 여전히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사업장일자리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한 기회의 장소이다. 그렇다고 인력이 부족한 모든 산업 분야에 제한 없이 무턱대고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산업의 제한, 직장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내국인과의 노동시장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이러한 경제적 측면이 강조된 상생의 이민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내국인의 일자리가 침해된다는 주장과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외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국인 유입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방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국민 일자리 보호와 방지책 등을 통해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체류에 따른 편익도 생각해야 할 때

외국인 근로자와의 노동시장 갈등과 더불어 이들의 해외송금 자체에 대한 반감도 더러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을 ‘국부유출’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송금을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주인공들이 왜 머나먼 독일에서 탄광근로자 혹은 간호조무원으로 취업을 했는지, 왜 국내 송금을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965년부터 10년간 이루어진 파독근로자들의 송금(약 1억 달러)을 포함하여 베트남 전쟁(1964~1973)에 참전한

군인과 민간인들의 송금과 1970년대 ‘중동건설’ 근로자들의 송금 등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국내로 유입되는 송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송금보다도 오히려 훨씬 많다. 또한 우리나라도 한때, 원조 수원국이었고 해외로 근로자를 수출하는 나라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미시적인 것이 아닐까? 더욱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입함으로써 국내 생산력과 국제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고, 송출국은 자본축적(송금)을 통해 자국의 경제 개발을 이룰 수 있어 인류 공영과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사회 통합에서의 갈등은 이민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주로 사회적 비용에 의한 문제로는 불법체류, 범죄 단속을 위한 행정 비용,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의료,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비용,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용에 의한 혼잡 비용, 장기적으로는 연금 비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사회적 편익도 있다. 체류 외국인을 통해 외국 문화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외국인 범죄율이 낮다면 우리나라 전체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고 1인당 행정 비용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조화로운 상생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민간외교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부족 인력 충원을 통해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며 소비 지출의 확대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인구 변동에 대응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류 외국인에 의한 편익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편익을 증대하고 비용을 감소시킬 사회 통합 정책 개발을 통해 내외국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업그레이드! 인천공항출입국 시즌2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의 역사에서 2018년은 변화의 해다. 5년의 공사 끝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1월 18일 개항했고, 5월부터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이라는 새 이름을 내걸었다. 1터미널보다 규모는 작지만 실 새 없이 출입국자를 맞이하느라 바쁘게 돌아가는 2터미널 출입국의 구석구석을 관찰해 보았다.

글 박지형 사진 이영균



2017년 전국 출입국자의 72.5%인 약 5,800만 명이 이용한 인천 국제공항. 증가하는 운송량을 소화하기 위해 지어진 제2여객터미널(이하 ‘2터미널’)이 2018년 1월 18일 개항했다. 현재 4개 항공사가 입주했으며 인천공항 전체 수속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이하 ‘인천공항출입국청’)의 손흥기 전 청장(현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장)은 개항 과정을 이렇게 회상했다. “빈 공터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노력이 동반되었죠. 2터미널 개항 준비에 애쓴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터미널은 1터미널보다 층고가 높고 이용객이 적어 쾌적한 느낌이다. 출입국심사장의 특징은 자동출입국심사대가 확장되었고 일반 심사대와 나란히 있다는 것. 2017년 3월부터 만 19세 이상 국민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 이용률이 높아졌다. 참고로 7~18세는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사전등록을 하면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또한 2터미널에 설치된 4세대 자동 심사대는 심사 시간 단축의 일등공신이다. 워크슬로우 시스템으로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걸어가는 동안 안면인식이 이뤄지고, 2인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수로 두 명이 들어가는 경우를 감지해낸다.

출입국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이처럼 인천공항출입국청의 기본 업무는 출입국심사다. 2터미널 개항에 따라 심사 인력은 200명가량 충원되었다. 심사장으로 안내한 박영은 반장은 “심사는 출입국의 핵심이자 기본 업무예요. 나머지 부서는 이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입국의 토대인 만큼 모든 신입 직원은 심사과를 가장 먼저 거친다.

올해 1월 입사한 심사11과의 천규희 반장은 2터미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터라 야간근무 시에는 표정이 딱딱하게 비칠 수 있지만, 배가 든든하면 미소가 절로 유지된다는 게 그의 노하우다. 인천공항출입국청은 크게 출입국심사대에서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심사과와 정밀심사가 필요한 이용객의 재심을 담당하는 입국재심과, 그 외 지원과로 나뉜다. 지원과에는 심사지원과, 조사과, 감식과, 정보분석과, 보안관리과 등이 포함된다. 2016년 일어난 밀입국 사건 이후 신설된 보안관리과는 CCTV로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파악하고 보안취약구역을 집중 순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학교에 교훈이 있듯 보안관리과에는 과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출입국을 원천봉쇄하자’.

지난 6월 퇴임한 김두열 과장이 붙인 것으로, 그의 퇴임 후에도 후배들은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2017년부터는 1년에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해 밀입국자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2터미널은 1터미널의 문제점을 보완해 설계한 건물로, 보안취약구역을 줄이고 대기공간을 축소해 불법환승객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고 한 원석 반장은 설명한다. 하지만 적은 인력이 먼 거리의 1·2터미널을 모두 순찰해야 하기에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다. 이런 환경 때문인지 팀원들끼리 더욱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첨단 시스템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그 외 지원과는 2터미널 합동청사 3층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정보분석, 감식 등이 이뤄진다. 정보분석과에서는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과 입국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IS)을 이용해 항공사에서 받은 승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발권 단계부터 위험 인물을 감지해낼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지만, 완벽을 기하기 위





해 정보분석과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 “최전선에서 위험 승객을 가려내야 하는 일인데, 저희가 잘해야 심사 과정이 수월할 테니 책임이 막중하다”는 장주희 반장은 항공사에서 법무부로 정보가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승객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출입국청은 국내 유일의 여행문서 감식기관이기도 하다. 전국 출입국 기관의 감식 업무를 담당하고, 조폐공사 등 타기관의 의뢰를 받아 자문 역할을 한다. 국내의 관련기관과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정보를 교류하는 것 또한 주요 업무. 이지수 반장은 감식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전했다. “얼마 전 재외공관과 전국 출입국기관을 대상으로 위·변조문서 감식기법 교육을 진행했는데 곧 인도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감식요청 및 적

발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가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 생각했죠.”

1터미널과 2터미널을 합쳐 900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이건만 신기하게도 만나는 직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팀 분위기가 가장 좋다며 자랑한다. 24시간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바쁜 나날이지만 과중한 업무 틈틈이 숨을 돌릴 때는 웃음소리가 퍼진다. 가까이서 일하는 팀원은 매일 봐서 반갑고, 멀리서 찾아온 직원은 간만이라 반가운가 보다. 국경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축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게 인천공항출입국청의 임무지만 그 가운데서 승객과 직원들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잃지 않는 것. 공항을 설렘의 장소로 만드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칭찬합니다

2005년부터 어느덧 14년째. 인천공항출입국청 구성원들은 십시일반으로 지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12명의 아이와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눔의 결과, 누적된 지원 금액이 2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복 구입 비용을 따로 마련해 후원함으로써 새 학기를 맞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걱정을 덜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한 인천공항출입국청.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려는 꾸준한 실천이 빛난다.



“인천공항 출입국 직원들은 365일 24시간, 더 나은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공항 근무 특성상 명절이나 연휴에 특히 바쁘는데 휴일을 반납한 채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표정과 격려의 말씀 보내주세요~”

손흥기 전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장(현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장)

“유머러스한 과장님이 자주 대기실에 찾아오시고 팀에 또래가 많아서인지 저희 22팀이 활발하고 분위기가 밝아요. 즐거운 이야기도 힘든 점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그리고 자동심사대를 아직 모르는 이용객이 많은데 1터미널에도 확장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심사 11과 천구희 반장



“24시간 탑승객 정보를 확인하고, 항공사와 연락을 위해 늘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2터미널로 이사 준비를 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만큼 급박하고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 팀의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끈끈하답니다. 부담감도 있지만 업무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정보분석과 장주희 반장

“보안관리과는 불법출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 업무를 하다 보니 무서운 부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늘 가까이에서 있으니 어려워 마세요. 그리고 친구이고 가족 같은 우리 팀원들! 미루는 일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줘서 늘 감사해요.”

보안관리과 한원석 반장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한·아세안 관계, 그 잠재력을 보다

글 박지형 사진 나우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주최한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가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출입국기관장 22명과 해외주재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해외주재관들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견학하기도 했다.

회의 이틀날에는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올해 4월 취임한 이혁 사무총장은 중국 참사관, 일본 공사, 필리핀과 베트남 대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11월 발표된 ‘신(新)남방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특강은 시작됐다. 4강(미·중·일·러)에 편중됐던 외교에서 벗어나 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의 교류를 증진해 경제적, 외교안보적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정책이다. “2017년에는 중국에 이어 아세안이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GDP는 낮지만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들로, 우리나라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이 직전까지 대사로 지냈던 베트남은 최근 핵심적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다. 2017년 약 1,500억 달러의 대(對)아세안 교역액 중 약 640억 달러가 베트남과의 교역이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경제 규모와 진출 가능성을 볼 때 충분한 잠재력을 지녔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끝으로 파이팅!을 외치는 참가자들. 아세안국가의 잠재력을 설명하는 이혁 사무총장. 중국의 사례를 들어 질문을 던지는 이덕룡 체류관리과장. 참가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차규근 본부장.

한·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2009년 3월 출범한 국제기구다.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투자진출 지원, 워크숍 및 강연과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으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있다.



더불어 아세안 국가 출신의 재한외국인 비율이 높아져 관계 증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류 열풍으로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 콘텐츠가 사랑 받고 있다는 점,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 사례를 물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 역시 대아세안 외교에서 한국의 강점. 하지만 정작 국가로서 한국이 신뢰를 얻고 있는지 질문해야 할 때라고 이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해 ‘상인국가’로 불리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중국,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 이전, 원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동등한 토대 위에서 협력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한 이 사무총장은 우호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비자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는 방안을 즉석에서 제의했다. 제국주의 압제, 전쟁 등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과 정서적 유대감이 있어 더욱 원활한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의 말을 끝으로 강연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재한외국인들의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기관장들과 아세안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주재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비자 정책을 둘러싼 국가 간 쟁점, 국내·외 출입국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 예리한 질문과 심도 깊은 토론이 끝나고,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특강은 끝을 맺었다.

새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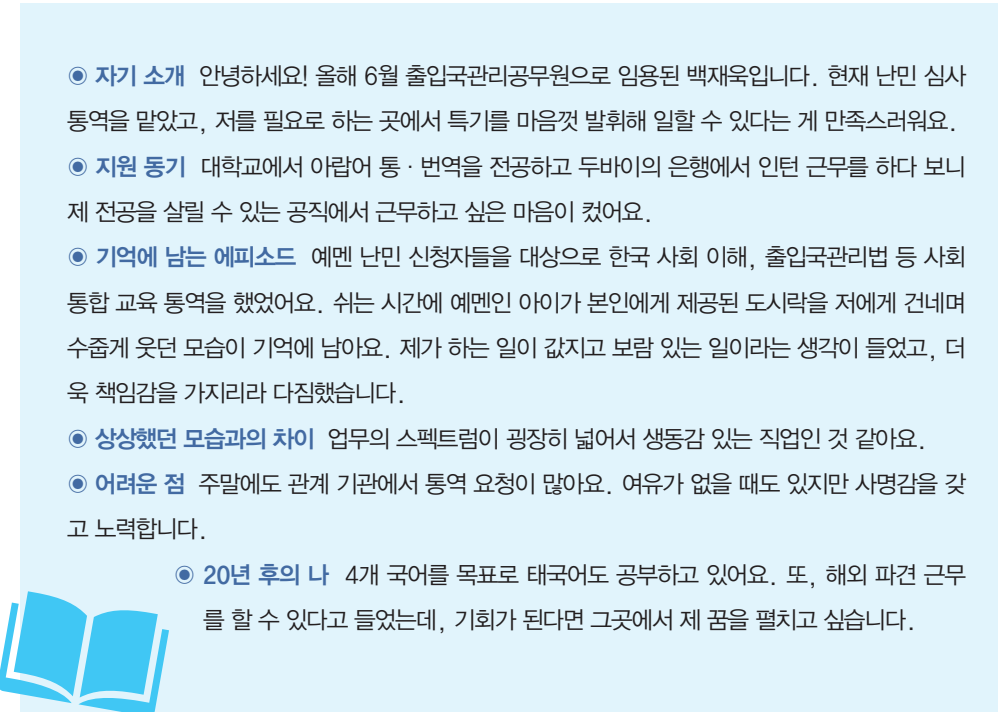


정소희 난민 심사 통역

-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 임용된 정소희입니다. 대학교에서 4년간 아랍어 통·번역을 전공했고, 튀니지에서 1년간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 **지원 동기** 공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하면서 국가 기관에서 전공을 살려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올해 3월 출입국관리직 아랍어 분야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국인 고용주가 예멘인 난민신청자 고용을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1년간 배를 타야 한다는 사실에 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자는 고용주가 돈을 받지 않고 숙식을 제공했으며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고, 고용주는 같이 일할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그에게 생활비에 보태라며 얼마의 돈을 건네주었어요. 통역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 **업무에 필요한 자질** 현지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알면 더 쉽게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한국어 능력도 중요하답니다.
- **20년 후의 나** 난민 심사관으로서 심사 업무도 직접 해보고 싶어요. 20년 후에는 난민 심사 전문가가 되어있기를 바랍니다.



막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새 얼굴들.
신규 임용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사명감으로 눈을 반짝이며 출입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섯 새내기의 힘찬 다짐을 함께 들어 볼까요?
정리 편집실



백재욱 난민 심사 통역

-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임용된 백재욱입니다. 현재 난민 심사 통역을 맡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특기를 마음껏 발휘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러워요.
- **지원 동기** 대학교에서 아랍어 통·번역을 전공하고 두바이의 은행에서 인턴 근무를 하다 보니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공직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이해, 출입국관리법 등 사회 통합 교육 통역을 했었어요. 쉬는 시간에 예멘인 아이가 본인에게 제공된 도시락을 저에게 건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하는 일이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리라 다짐했습니다.
- **상상했던 모습과의 차이** 업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생동감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 **어려운 점** 주말에도 관계 기관에서 통역 요청이 많아요. 여유가 없을 때도 있지만 사명감을 갖고 노력합니다.
- **20년 후의 나** 4개 국어를 목표로 태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또, 해외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 **자기 소개** 저는 올해 6월 임용되어 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동철입니다. 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전공했고, 태권도 5단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태권도 시범단으로 활동하며 국내외에 태권도를 소개하는 일을 했고, 군 복무 시절에는 페루 공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태권도를 지도한 경험이 있어요.
- **지원 동기** 3년 6개월 동안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무도 분야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죠.
- **상상했던 모습과의 차이** 처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을 조사, 단속, 보호하는 업무도 중요하더군요.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 **20년 후의 나** 지금 하는 조사, 단속 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심사, 체류 관리, 국적, 난민 등 여러 업무를 다방면으로 경험해 보고 싶어요. 모든 업무에 능통하게 되면 저를 필요로 하는 어디든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신동철 조사과



김나정 난민 심사 통역

- **자기 소개** 저는 난민 심사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김나정입니다. 임용된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아랍지역과를 전공하면서 아랍어와 아랍어권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공부했어요. 쿠웨이트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과 쿠웨이트 코트라의 인턴으로 참여했어요.
- **지원 동기**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아랍어 분야 경력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 **업무에 필요한 자질** 통역 업무를 하려면 외국어 능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성격이 외향적이면 좋아요.
- **상상했던 모습과의 차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 **20년 후의 나** 출입국 업무의 한 분야에 정통한 선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정밀하게 심사하는 재심 업무를 해 보고 싶어요. 제 전공과 외국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 단속, 국적, 난민 등 업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생동감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장지원 출입국심사

-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심사과에서 출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지원입니다. 올해 1월 임용되었습니다.
- **지원 동기**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업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공항은 승객들의 설레는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이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승객들을 만나는 것도 제 성격과 잘 맞을 것 같았어요.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입국심사를 할 때였는데, 중국인 승객 1명이 여권을 기내에서 분실한 거예요. 여권이 없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던 중국인 승객의 비행기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항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여권을 찾아 준 적이 있어요. 저의 조그마한 배려와 관심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뻛고, 외국어를 잘하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후로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 **상상했던 모습과의 차이** 출입국심사관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결정하면서도 위험 외국인을 차단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 **20년 후의 나** 난민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연수원의 신규자 교육 과정을 거치고 올해 6월 임용된 이상겸입니다. 현재 난민 심사 통역과 난민 신청자들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안내하는 등 난민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업무라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어요.
- **지원 동기** 대학교에서 아랍어 통·번역을 전공하고 사기업에서 근무했는데, 전공과 맞지 않아 그만두고 2년 넘게 주레바논한국대사관에서 일했어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공직을 꿈꾸던 중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어요.
- **업무에 필요한 자질** 통역 업무에는 외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레바논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중동 국가에서 3년 넘게 생활했던 경험이 통역 업무에 많은 도움이 돼요.
- **20년 후의 나**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습득하고 싶어요.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 신규자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웠는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더라고요. 많은 경험을 한 뒤 최종적으로는 난민 업무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상겸 난민 심사 통역

출입국 Q&A

< 알아두면 유용한 출입국 상식 >

궁금해요 출입국!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국내에 있는 국민의 경우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참조)에서, 체류외국인은 국내 자국 재외공관에서 여권(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을 재발급받은 체류외국인은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꼭 방문해야 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전자민원’ 메뉴)를 참고하세요.

궁금해요 출입국!

방문예약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전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하는 출입국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방문예약’ 메뉴)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시행기관(12개 기관): (청)서울 · 부산 · 인천 · 수원, (사무소)서울남부 · 양주 · 청주, (출장소)세종로 · 안산 · 천안 · 평택 · 고양

궁금해요 출입국!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려면 출입국 기관에 방문해야 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나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싶은데 등록이 필요한가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은 사전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7세에서 18세 이하 국민, 17세 이상 등록 외국인인 사전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출국금지 여부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해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K.I.S. CALENDA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재한외국인의 든든한 동반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0주년

220만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의 개소 10주년을 맞아, 3월 23일 서울 목동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축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08년 3월 31일 출범하여, 출입국 · 체류 관련 민원 상담 및 각종 행정 · 생활 정보를 20개국 언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사기관 및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국적증서 수여식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4.13.)에 즈음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을 예우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7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귀화요건 완화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60세 이상)에 대한 귀화 면접 시험을 면제하고, 생계유지능력 인정 범위도 확대하는 등 귀화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천사공익기금 전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 중인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0일, 전국에서 31명을 선정하여 법무부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 총 1천5백만 원을 각 지역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에서 전달하였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정착을 원하는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 이해 등의 교육과 생활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단계별 최대 485시간)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귀화시험 면제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5월 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출입국 · 외국인청과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 왜 변경되었나요?

60년대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진 출입국 업무(체류관리, 국적 · 난민, 사회통합 등)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 · 서울 · 부산 · 인천 · 수원 · 제주) → 출입국 · 외국인청
-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남부 · 김해 · 대구 · 대전 · 여수 · 양주 · 울산 · 김포 · 광주 · 창원 · 전주 · 춘천 · 청주) →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방향을 찾다



국회의원 금태섭, 한국이민법학회와 공동으로 5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 · 통합 · 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사증 및 체류 제도 개편’, ‘외국인의 단속 · 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 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국 이민자네트워크 대표, 사회통합 현장을 말하다

현장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6월 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이민자네트워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 들은 이민자들이 입국 초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내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 으며 네트워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이민자 네트워크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이 2007년부터 결성한 자조모임으로, 전국 15개 출입 국 · 외국인청(사무소)에서 이민자 대상 통역 지원 및 민원 안내 도우미, 결혼이민 자 ·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국내 정착 멘토링 등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인프라 강화의 길을 찾다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6.20.)을 맞이하여 6월 18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1차 난민심사 내실화 방안’, ‘난민발생 국의 국가 정황 이해’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 으며,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난민심사 인프라 강화 등 포럼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난민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주를 사랑한 맥그린치 신부, 대한민국 품 안에 잠들다



해 6월 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명예국민증을 헌정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초의 사후 헌정 사례로, 조카인 레이몬드 맥그린치와 제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마이클 리어던 신부가 명예국민증과 기념동판을 수여받았습니다.

6.25 전쟁 직후 가난 과 질병에 허덕이는 제주도민의 자립과 복 지를 위해 64년간 헌 신하다 4월 23일 선 종하신 맥그린치(한국 명 임피제) 신부의 봉 사 정신을 기리기 위

● 맥그린치 신부
Patrick James McGlinchey
1928년 아일랜드 레터케니에서 출생, 1954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성 골롬반 선교회 사제로 제 주도에 부임한 이후 6.25 전쟁 등으로 가난과 굶 주림에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직물회사 및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제주도민들이 경제적 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쓸모없는 황무지를 주민들과 함께 개간하 고 선진 축산기술을 도입해 이시돌 목장을 아시아 최대의 양돈단지로 만들었으며, 수익금으로 양로 원, 요양원, 호스피스 병원 등을 세워 제주도민들 의 삶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언론 브리핑



최근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에 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29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김오수 법무부 차 관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 언론 브리핑 주요 내용
- 난민심사 인력(6명) 추가 투입으로 심사기간 단축(기존 8개월→2~3개월), 철저한 신원검증 등 엄정 · 정확 ·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
 -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 추진
 -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관 증원, 국가정황 수집 · 분석 전담팀 설치 등 인프라 구축
 - 난민심판원을 신설하여 이의제기 절차 대폭 간소화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공존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행하는 공감매거진 <공존>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공존'을 검색하세요.
<공존> 앱북(App Book)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iOS용



Android용

Event

국민과 재한외국인,
'상생'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주제 **기부, 기증, 봉사 활동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 사이의 나눔**

제출자료 주제에 관한 **사진(JPG파일)**과 **설명**(200자 내외)

응모자격 국적, 성별, 나이 상관 없이 **누구나 가능**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 (kwakes35@korea.kr)

접수마감 **2018년 11월 5일 (월)**

결과발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12월 중), <공존>겨울호

으뜸상 1명
10만 원 상당 상품권

버금상 2명
5만 원 상당 상품권

돋움상 4명
1만 원 상당 디저트교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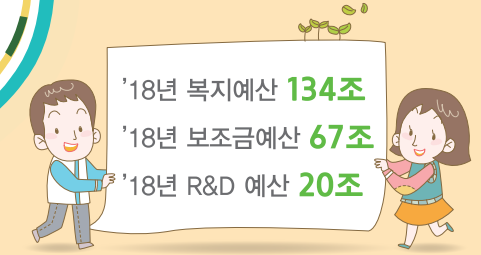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법무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 신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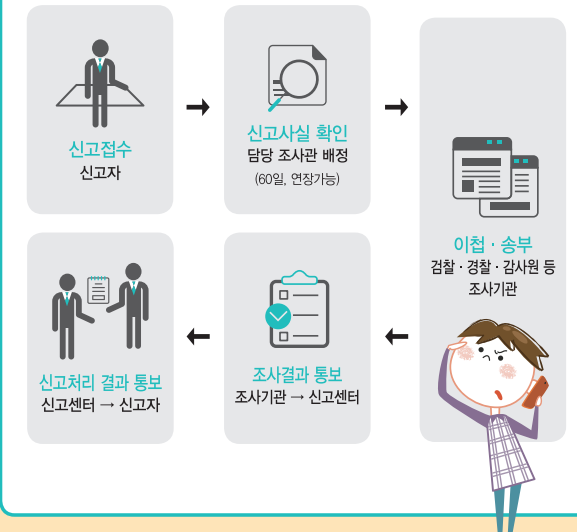
-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 팩스 : 044-200-7972
-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익명신고 불가)
-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사건 처리절차



Readers' Opinion

공존에 바란다!



<공존> 2018 여름호, 즐겁게 읽으셨나요?

새로운 코너에 대한 감상, 공존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공존에 바라는 점 등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페이지의 '공존에 바란다' 포스트에

12월에 발행될 겨울호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www.facebook.com/immigration.kr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인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 · 경영 · 예술 ·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원국적도 함께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1~2017년, 첨단기술 · 과학 분야 70명, 체육 분야 25명 등 총 119명이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